

2026.06.30

제약·바이오_Issue Comment



Medicare GLP-1 브릿지 7/1 시작

김민정 제약·바이오
02-709-2652
kim.min_jeong@ds-sec.co.kr

용량무관 월 \$50에 비만약 제공

오는 수요일부터 Medicare GLP-1 브릿지 시작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CMS는 Medicare GLP-1 브릿지를 시범 운영한다. 체중 감량을 목적의 Medicare Part D 수혜자에 한하여 Foundayo, Zepbound(kiwi pen), Wegovy(주사 및 정제)를 용량무관하게 월 \$50에 제공한다. 대상자는 BMI 35 이상, BMI 30 이상이며 심부전, 고혈압, 신질환 동반 환자, 혹은 BMI 27 이상이며 뇌졸중, 심근경색 이력 또는 증상성 말초동맥질환, 당뇨전단계 환자이다. 이미 GLP-1 치료 중인 환자라면 치료 시작 시점에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당뇨·OSA·MASH 적응증 환자는 Part D로 받아야 하며 브릿지 대상이 아니다.

용량 상한을 늘려온 가격, \$50 균일가는 패널티를 제거할 것

GLP-1 치료제는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확산이 저해되어왔다. 핵심은 가격 혜택이 유도용량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용량을 투여받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저용량에서 사용자 정체가 관찰되었다. TrumpRx 기준 가격 격차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Wegovy 주사제는 저용량 \$199/월, 고용량 \$399/월에 제공되며 Zepbound \$299/월→\$699/월, Wegovy pill \$149/월→\$299/월, Foundayo \$149/월→\$349/월로 고용량으로 갈수록 가격은 2배 이상 부과된다. 그 결과 현재 Realworld에서 약 80%는 low maintenance 용량에 정체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용량에 무관하게 월 \$50에 약물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정체된 저용량 사용자를 고용량으로 유도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시범 프로그램 대상자 약 300만명, 시장 확대 연 \$8.8b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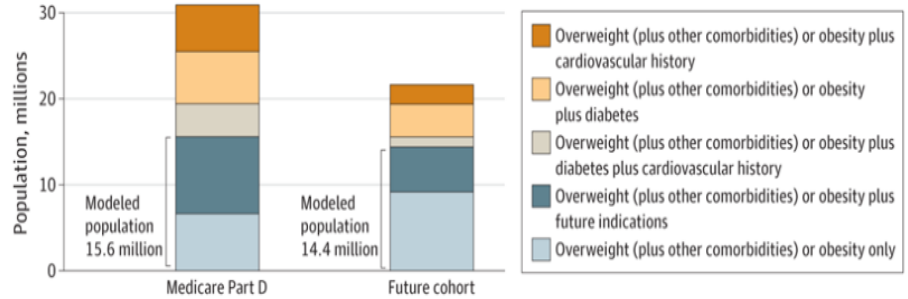
2025년 JAMA health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약 3천만명의 메디케어 수혜자 중 약 300만명이상이 GLP-1 치료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업체들은 net price 기준 \$245/월에 GLP-1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환자 부담금 \$50/월을 제외한 \$195/월이 정부 순 부담이다. 단순 계산으로 약 \$8.8bn 이상 시장 확대가 전망된다. 추가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 공보험 특성상 수혜자는 다수의 약제를 이미 복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으며, 이에 주사제보다 경구제가 혜택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일라이 릴리는 파운다요가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6월 28일 종가 기준 \$1,208.12 신고가를 달성하였다. 단, 프로그램은 아직 수혜자 인지도가 낮다. 누가 더욱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지 여부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메디케어 Part D 수혜자 및 향후 코호트에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 질환의 유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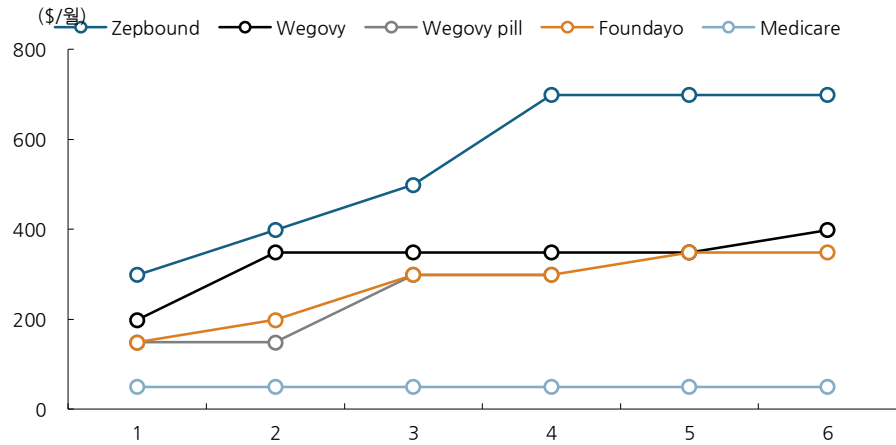
그림 1. 메디케어 파트 D 수혜자 및 향후 코호트에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 질환의 유병률



자료: JAMA healthcare,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Overweight는 BMI 27-29.9 + 1가지 이상의 동반질환 포함, Obese는 BMI 30이상

그림2 용량별 비만치료제 TrumpRx 기준 가격 + Medicare



자료: TrumpRx,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단계별 용량은 기재하지 않음. X축은 단계를 의미함. Wegovy Pill은 총 4단계로 구성됨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배우자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